

# 올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전북도·경진원,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등 총 515억 편성... 내달 3일부터 접수·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오는 4월 3일부터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2분기 지원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50억원, ‘경영안정자금’ 225

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원 등 총 515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기업당 용자 지원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16억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최대 5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1.6%,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0.6%,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이

설정된 대출금리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2~3%를 제외한 금리를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을 기반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체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 자금별로 상이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전북도 또는 경진원 홈페이지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분기 자금은 오는 4월 3일부터 경진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www.fund.jttkr)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각 자금별 분기금액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이현웅 경진원장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자금지원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자금난이 해소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 부안서 가뭄대책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30일 부안 청호저수지에서 이정문 본부장으로부터 삼진강 수계 수해구역(김제·부안·정읍 3면3,000ha) 용수부족 대비, 하류부 하천 물가두기 및 저수지 양수저류 등 1,500만㎡ 확보 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번 이 사장의 용수확보 현장 방문은 가뭄대책 점검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 사장은 “가뭄 피해 우려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가뭄 장비, 인력,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정문 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급수대책이 절실한 때인 만큼 농업인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봄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작년 12월부터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 하천 등 농업기반시설을 이용한 물가두기 및 절수 이행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500만톤을 확보하고, 이양기까지 4,700만톤을 확보해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부안 청호저수지를 찾은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30일 가뭄대책 점검에 나서고 있다.

## 도내 제조업 3월 업황 올랐다

### 업황BSI 73으로 전월대비 17p ↑... 4월은 더 오를 듯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023년 3월 전라북도 기업경기조사 결과와 4월 전망을 발표했다.

2023년 3월 전라북도 제조업 업황 BSI는 73로 전월(56)대비 17p 상승했으며, 4월 업황전망 BSI 75로 전월(64) 대비 11p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3월 실적(70)은 7p 상승, 4월 전망(68)은 3p 상승세를 보였다.

3월 중 매출 BSI 실적은 79로 전월 대비 12p 상승, 4월 전망(83)도 전월 대비 9p가 올랐으며, 채산성 BSI 실적은 74로 전월 대비 6p 상승, 4월 전망(74)도

전월 대비 4p 상승했다. 이어 자금사정 BSI 실적은 75로 전월 대비 5p 상승, 4월 전망(76)도 전월 대비 6p 올랐다.

3월 중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여로서황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22.9%), 내수부진(18.1%)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월과 비교시 수출 부진(7.5%→7.7%), 자금 부족(5.4%→7.4%) 등의 응답 비중은 상승했지만, 원자재가격 상승(23.1%→22.9%), 내수 부진(18.4%→18.1%) 등의 응답 비중은 하락세로 확인됐다.

2023년 3월 전북지역 비제조업 업황 BSI는 63으로 전월(62)대비 1p 상승했으나 4월 업황전망 BSI는 63으로 전월(68)대비 5p 하락을 보이고 있다.

전국 3월 실적(74)은 1p 상승, 4월 전망(75)은 1p 상승이다.

3월 중 매출 BSI 실적은 77로 전월 대비 2p 올랐으나, 4월 전망(75)은 전월 대비 5p 하락했다. 채산성 BSI 실적은 68로 전월 대비 1p 상승했으나, 4월 전망(70)은 전월 대비 2p 하락했다. 자금사정 BSI 실적은 67로 전월보다 2p 상승하였으며, 4월 전망(67)은 전월과 동일하다.

3월 중 전북지역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여로서황으로는 내수 부진(16.3%),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15.9%), 불확실한 경제상황(13.1%)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영태 기자

##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 검사·점검 기준 기술세미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BSC)의 현장 중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을 열었다.

30일 공사는 청주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학인재개발원에서 박지현 사장을 비롯한 신학연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KBSC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세미나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달라진 KBSC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며 관련 산업계 목소리를 듣고 개선과제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태 기자

## 전북일자리센터, 우석대와 지역청년 고용활성화 협약

전라북도일자리센터와 우석대가 지역청년의 고용활성화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체결했다.

2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학생 및 지역청년들의 진로·취업상담 지원,

취업 프로그램 협업 운영, 채용 및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 진로·취업 지원에 필요한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현웅 전라북도일자리센터장은 “이

번 협약을 통해 전북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도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일자리센터는 전북도민더 나은 일거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농협자산관리 전북지사

###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

농협자산관리 전북지사(지사장 조인갑)가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에게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 행사를 실시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

행사에는 조인갑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장이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배모씨(부안군)는 “부실화된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계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농협자산관리 전북지사가 올해 초부터 실시하는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는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 제도로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에게 채무로 힘들었던 시간을 잊고 응원과 격려로 재기 의지를 북돋아주는 프로젝트이다. /이영아 기자

## 탄탄한 기술력... 올해도 성장가도

### 완주 소재 '대유에이피', R&D 융합관 주축 연구·개발 조직 운영

대유에이피그룹의 계열사로 전북 대표기업의 국내 자동차 스티어링 휠 1위 업체 대유에이피(대표 이석근)가 탄탄한 기술력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유에이피는 전북 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 및 다양한 특허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90, G70과 차세대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아이오닉5, EV6 등의 스티어링 휠을 생산하고 있다.

대유에이피의 지난해 매출액은 2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 상승했다.

대유에이피의 탄탄한 기술력에는 △체계적인 연구 개발 조직 운영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특허 획득 등이 뒷받침 되고 있다.

대유에이피는 전라북도 완주에 위치한 R&D 융합관을 주축으로, 신기술·신공법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R&D 융합관'은 총 42대의 실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선행 개발-제품 개발-신뢰성 시험 등 제품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전 과정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조직 구성으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기술 및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유에이피는 스티어링 휠과 관련된 다양한 특허를 획득하며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18건 (특허권 17건, 디자인권 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1건은 상용화된 대유에이피의 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우드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 D컷 스티어링 휠 등은 카니발 에쿠스 K5 등에 적용됐다. 합티 스티어링 휠은

차선 이탈 등 이상 징후 감지 시 진동 및 음성으로 운전자 주의 경보 안내를 주는 기능으로 기존에 모터를 이용한 진동 알림에서 스피커를 이용한 진동과 음성 알림으로 안내하는 신기능이다.

대유에이피는 지난해 폴더블 스티어링 휠에 대한 특허권도 획득하며, 미래차 산업과 연계한 핵심기술도 확보했다. 폴더블 스티어링 휠은 그립부가 폴딩 되어 운전자가 승/하차 시 무릎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주행 중 운전자에게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대유에이피 관계자는 “대유에이피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밑거름 되고 있다”며 “올 한해도 신소재, 신공법,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지속해 나가며 업계 최정상의 자리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캠페인을 30일 실시했다.

## 안전의식·문화 캠페인 '시동'

### LX 안전문화실천추진단 14개 기관과 교통안전캠페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캠페인을 30일 실시했다.

이날 혁신도시내 교차로 위험구역에서 전북도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의협회, 한국식품연구원, 건설안전협회 등 안전문화실천추진단(단장 이경환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 14개 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로서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통해 안전문화를 공문화화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됐다.

이날 안전캠페인에 참여한 공공기관 임직원 70여명은 어린이 이

용이 많은 등곳길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구호를 담은 현수막과 피켓으로 안전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어린이와 시민이 교차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활동을 실천했다.

이번 안전캠페인을 시작으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기관들과 협업체 지역주민들을 향한 지속적인 안전문화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보영 LX공사 안전관리처장은 “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도내 복지사각 위기가구 집배원들이 직접 살핀다

### 전북우정청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내달부터 본격 시행 전주·정읍·남원·순창 등과 협력 1000여가구 대상

전북지방우정청은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4월부터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과 협력해 복지사각 1000여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복지등기우편은 지자체가 위기 징후 가구나 특거 가구 등을 선정해 복지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매달 1~2회씩 발송하는 서비스다.

집배원은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위기 가구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얻은 주거, 생활 애로사항' 또는 이전에 배달한 우편물이 여전히 있거나, 집에 TV 소리가 나는데 정작 인기척은 없다'와 같은 특거 가구 고독사 징후를

집배 업무용 PDA로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홀로 거주하는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취약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김꽃마을 청장은 “우체국은 국민과 늘 가장 가까이 있기에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했다. 앞으로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 안전지킴이와 복지사각가구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지자체와 협력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배암차즈기 항산화 성분 늘리고... 쓴맛 줄이고...

### 열풍 건조 분말에 유기산 넣고 찐 뒤 식품 효소 처리 뜨거운 물 추출할때보다 플라보노이드류 8.3배 증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배암차즈기의 항산화 성분은 늘리고 배암차즈기 특유의 쓴맛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배암차즈기는 꿀꿀과에 속하며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자생하며, 겨울에도 자랄 만큼 생명력이 강해 동생초, 설견초라고도 부르며, 꽃이 뱀을 닮았다 해 배암(뱀배추라고도 한다).

배암차즈기의 주요 기능 성분으로는 플라보노이드, 페놀화합물, 사포닌 등이 있고 기침, 천식 등 기관지 질환과 항산화,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황사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열풍 건조한 배암차즈기 분말에 유기산(구연산)을 넣고 찐 다음,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식품 효소(펙틴, 전분 분해효소)를 처리해 추출물을 만드는 것이다.

효소 처리 추출물은 뜨거운 물로 추출한 배암차즈기 추출물보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류가 8.3배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으며, 배암차즈기를 가공하는 농산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고품질 배암차즈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배암차즈기의 식품 산업화와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기능 성분을 높이고 쓴맛을 줄이는 기술 개발은 필수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소면적 재배 작물을 고기능성,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